

##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관동보고서》 펴낸 홍진희씨

“우리는 너무 얽치없는 민족입니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너무 보잘 것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미래를 준비합니까?”

“역사를 생각하는 모임” 회장이며, 서울 미림여고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진희(45)씨가 우리의 허구적 역사의식을 꼬집는 말이다. ‘관동대진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관동보고서》(나무와 숲)에서 근거를 제시한다.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당했던 수많은 압제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이 사건으로 적게는 8천명에서 많게는 2만명의 동포가 처참하게 학살당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분열된 상태였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주의 이입과 경제 피해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대지진이 일어나자 국가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조선인 학살을 조장한 것입니다.”

지진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인에 의한 방화와 약탈’이 들끓고 있다고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시켰다. 광분한 ‘자경단’이 조선인 사냥에 나섰고 군대 역시 대학살에 가담했다. 불과 보름동안 그 많은 조선인이 살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명백한 증거도 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사건을 은폐·호도하고 있다.

반면 민간인 가운데 진상파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 저지른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인이 무섭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일본 각료의 망언보다 스스로 저지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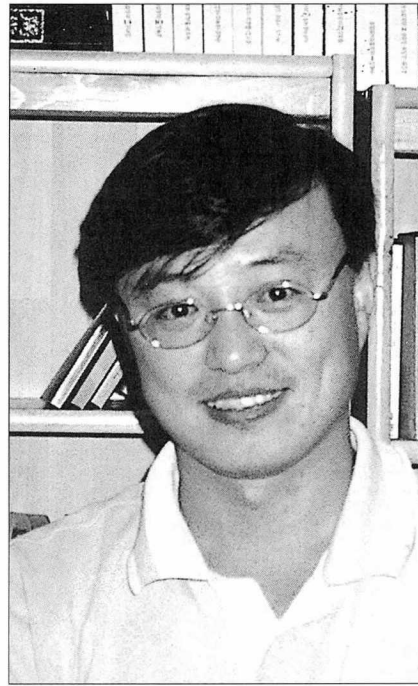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소수가 있는 일본이 무섭습니다.”

소수의 일본인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60여권의 저서를 펴냈다. 총8개의 위령탑 가운데 6개를 그들 손으로 세워 무고하게 살해당한 조선인을 위로한다. 그것을 기만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만행을 저지른 자들을 용서하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을 우리와 다음 세대가 바로 알도록 노력하지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이기 때문일까. 그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 바로세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빛을 보게 된 이 책 역시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라고 강조한다. 그의 뜻에 ‘콜라독탑 815’가 동참했다. 책에 실린 관련사진은 일본 시가 현립대학에 있는 강덕상 교수의 도움이 컸고, CD에도 담았다.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허구적 역사의식을 고발하는 몇권의 책을 펴낸 홍진희씨의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소명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 오완진 기자



## 탈주를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

《탈주선 위의 단상들》 펴낸 이진형씨

안에 자리잡을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공간과 여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는 탈주의 철학을 공간과 예술로도 확대시킨다. 근대적인 공간은 인간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제약했으며, 공간 자체가 바뀔으로써 근대적 삶의 방식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마르크스도 새롭게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80년대의 마르크스는 스탈린주의의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르크스가 하나의 체제로서 생성의 힘을 멈추면 죽어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형태, 다른 모습의 마르크스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학기에 <서구의 근대적 주거공간에 관한 공간사회학적 연구>로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들뢰즈 세미나를 진행중이고 경제학 공부도 새로 시작했다. 근대적 시선의 체계를 주제로 한 책도 펴낼 예정이다.

“사상가들에 대한 주석달기식 학문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론가의 사고를 제 자신의 맥락 속에 포섭시켜 끊임없이 다른 방식의 사유를 진전시켜 갈 생각입니다.”

— 박천홍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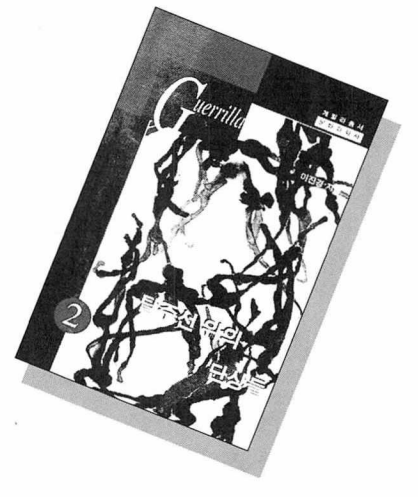
‘탈주’(脫走)의 사전적 정의는 ‘어느 곳에서 몸을 빼어 달아남’이다. 대개 감옥·군대·경찰서 등 억압적인 공간에서 벗어났을 때 쓰인다. 그러나 이를 철학적인 의미로 확장하면 기존의 지배적 가치체계, 삶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바뀐다.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는 권위적 지배체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꿈꿀 때 ‘탈주의 철학’이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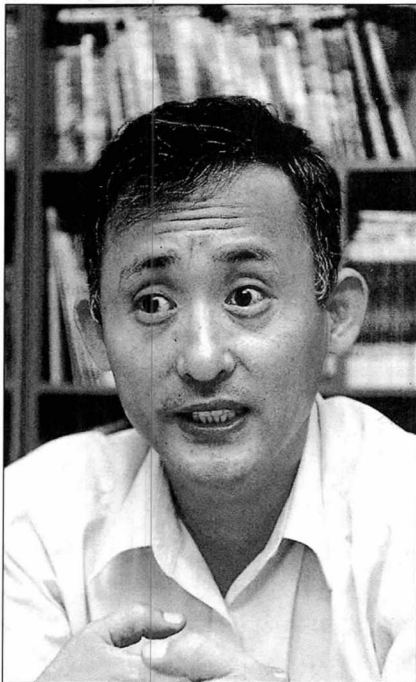
90년대 초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으로 ‘사회구성체 논쟁’의 흐름을 뒤바꾼 논객 이진형씨(35)가 ‘탈주의 철학’으로 이론의 전위에 복귀했다. 《철학과 굴뚝청소부》·《철학의 탈주》에 이어 펴낸 《탈주선 위의 단상들》(문화과학)은 그 이론적 정교화와 영토확장의 연장이다.

“‘탈주의 철학’이란 지배적인 가치·질서의 전복과 그로부터 이탈을 꿈꾸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에게 획일적인 삶과 행동양식을 강제하는 자본주의적 근대세계로부터 끊임없이 탈주해 새로운 양식과 세계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책에는 마르크스주의·정치·영화·건축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현재의 삶을 억누르는 억압적 체제에 대한 전복과 그로부터의 탈주를 향한 역동적 이론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을 가로지르는 관점은 “탈주선이란 기존의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일종의 잠재적인 힘이자 의지”라는 것이다.

“지배체제는 끊임없이 인간을 자신의 영토 안으로 포섭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와 운동은 또 다시 지배체제에 포위되고 맙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탈주의 과정을 통해 지배체제





## 만화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

《한국만화통사(하)》 펴낸 손상익씨

만화의 역사는 근대적인 의미의 출판물과 함께 시작됐다. 하지만 만화가 '대본소 시대'를 거쳐 어린이 불거리로만 여겨지면서 만화는 어린이 학습교재에 국한돼 성장했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만화통사(하)》(시공사)는 해방 이후 우리 만화가 걸은 반세기 영욕의 발자취를 다룬다.

“흔히 만화를 제 9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늦게 등장했기 때문에 기존 장르가 받는 충격도 컸고 만화를 우습게 보는 일도 생겼지요. 하지만 만화는 이제 대세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 역시 만화라는 매체입니다. 만화는 설명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거든요.”

저자인 손상익씨(43, 한국만화문화연구원장)는 잘라 말한다. 이 책은 해방 이후, 만화의 역사를 '만화시대의 개막', '만화 전성시대', '만화문화의 중흥기'로 나눈다. 초창기 만화가들의 명단에 김기창·송영방·이필연 등 화가의 이름이 있어 눈에 띈다. 또한 이때에도 만화가 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만화 비판론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 우리 만화가 겪어온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의미심장한 일이다. 하지만 이 책은 한국 만화가 건전한 사회 비판에서 시작됐으며 예술의 자리에 서 있다고 강조한다.

손씨가 처음 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있을 무렵이다. 그 당시 《스포츠서울》 신춘문예에 만화평론 분야가 신설됐는데, 이틀밤을 꼬박 새우며 쓴 평론 《시사만화 고바우 연구》가 당선됐다. 손씨는 등단한 직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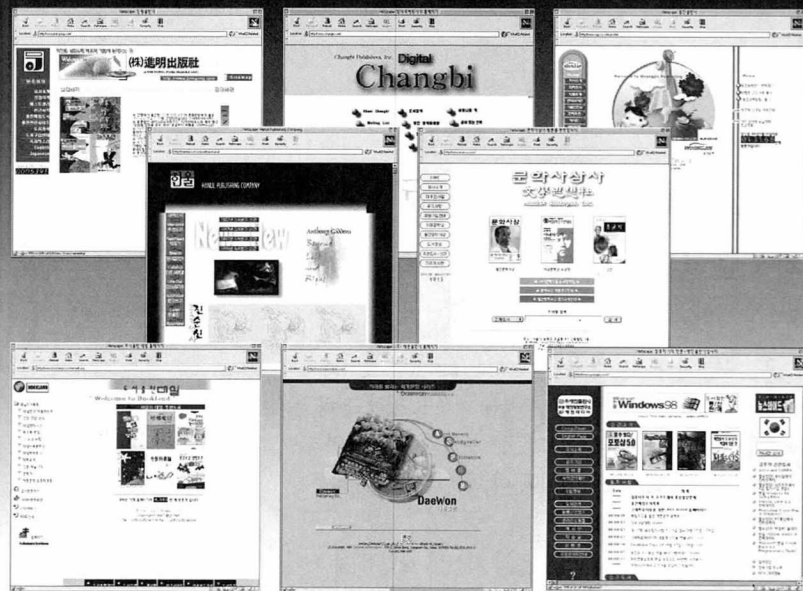
《한국만화통사》를 쓰겠다고 결심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사건이 들어간 인상비평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였다. 이 계획은 1995년 7월, 한국만화통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이두호)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현세·허영만·고행석·황재 등 만화가들의 금전적 도움이 컸다. 1996년 《한국만화통사(상)》(프레스빌)의 발간을 가능케 했던 이 위원회는 같은 해, 한국만화문화연구원으로 확대·개편돼 오늘에 이른다.

“처음 연구원을 모집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만화를 연구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스터디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코코리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죠. 현재는 3기 연구원 6명이 교육중입니다.”

이 연구원들이 《한국만화통사》의 집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했다. 앞으로의 작업 역시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진행될 터인데, 좀더 전문적인 만화이론서를 낼 계획이다. — 김연수 기자



## 인터넷 사업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버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전산요원 · 웹디자이너가 필요하십니까?  
365일 24시간 전문 홈페이지 운용 능력을 제공합니다.  
코아트는 인터넷을 통한 귀사의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Web Hosting 서비스 / Web Magazine 제작 / Homepage 제작 / 서버구축 및 관리

**KOART** Tel: 275-2617(108, 113), 268-8276(직통)  
http://greentek.net/~koart

- ▶ 인터넷출력 국내최초 실시!
- ▶ 다국어 출력의 선구자!
- ▶ 자동대첩 최초 시작!
- ▶ 4.6인치출력 시조!



● 토탈드립스캔 포함 분판출력  
24시간 서비스 가동!



188GB

**365일 무정지시스템**

강력한 시스템 운용으로 대용량의 작업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 (월간지 처리능력 탁월)

**다국어출력서비스** 매킨토시에서 다국어 입력이 필요하신 분은 그린테크로 오십시오.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한글Quark에서 입력이 가능한 로알다국어 폰트 QuarkXtention 및 서체메뉴얼을 드립니다.

- 짜임새 있는 디자인을 지원하는 삼분각 서체 보유
- 확장한자, 일본어, 대만어 포함 '98 한글서체 전종보유

4x6인치 필름분판출력 / 토탈드립스캔서비스 / HP컬러실사출력 / 자동제판 / CD백업

자유/신뢰/기술을 제공하는 since 1991  
**그린테크(주)** Tel: 275-2617(안내118), 080-765-8276(상담)  
GREENTECHNOPIA CO.,LTD http://home.greentek.net/